

The Gospel of Mark

Sermon 68 – Sermon Notes

Title: “Facing the Sanhedrin”

Scripture: Mark 14:53-65

Date preached: December 31st 2023

Scripture: Mark 14:53-65

53 And they led Jesus away to the high priest; and with him were assembled all the chief priests, the elders, and the scribes. 54 But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in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And he sat with the servants and warmed himself at the fire.

55 Now the chief priests and all the council sought testimony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but found none. 56 For many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but their testimonies did not agree.

57 Then some rose up and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saying, 58 “We heard Him say, ‘I will destroy this temple made with hands, and within three days I will build another made without hands.’” 59 But not even then did their testimony agree.

60 And the high priest stood up in the midst and asked Jesus, saying, “Do You answer nothing? What is i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61 But He kept silent and answered nothing.

Again the high priest asked Him, saying to Him,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62 Jesus said, “I am.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Power, and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63 Then the high priest tore his clothes and said, “What further need do we have of witnesses? 64 You have heard the blasphemy! What do you think?”

And they all condemned Him to be deserving of death.

65 Then some began to spit on Him, and to blindfold Him, and to beat Him, and to say to Him, “Prophecy!” And the officers struck Him with the palms of their hands.

53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였다. 54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가서 경비병들 틈에 끼어 불을 쬔고 있었다. 55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다. 57-58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 59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60 이 때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61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62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63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64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65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마구 치며 “예언자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고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넘겨 받더니 뺨을 쳤다.

Review

Before we turn our attention to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take a few moments to review what we looked at two Sunday's ago. As I hope you remember we looked in some detail at Jesus' arrest.

We found ourselve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It is late on the Thursday evening of Passion Week. Jesus and the disciples had celebrated the Passover meal together. Following this Jesus had instituted the Lord's Supper. After the meal was over Jesus had lead the disciples up onto the Mount of Olives to an area known as Gethsemane (the place of the olive press). This quiet and peaceful place is the ideal location for Jesus to commune in prayer with God the Father. His prayer is that the cup of suffering; the burden of the cross be taken from Him. What lies ahead weighs heavily upon Him. He is not only concerned about the physical pain that He will have to endure but also on the spiritual torment of the cross. However despite His request Jesus fully and willingly submits Himself to the will of the Father. He will do whatever the Father asks of Him.

The time of prayer and reflection ends with the arrival of Judas and a large body of men who have come to arrest Jesus. This "small army" made up of the Jewish leaders, temple police and Roman soldiers arrive heavily armed and ready to take this "dangerous revolutionary" into custody. In the dark and gloom of the garden Judas betrays the Lord Jesus with a kiss. As they lay their hands upon Jesus this is the cue for Simon Peter to leap into action. Drawing his sword he lashes out cutting off the ear of Malchus (a servant of the high priest). Although this man's healing is not recorded in Mark we know from Luke that Jesus fully restored the ear. This unnecessary incident annoys the Lord Jesus.

He rebukes the men who have come to arrest Him. He was not a terrorist or criminal who went about His business at night. He was always open and transparent. Every day He taught freely in the temple. Therefore there was no need to come in this way; heavily armed and at night. They could have come during daylight hours, and He would have willingly gone with them. Still this is exactly what had been prophesied to happen. Jesus is bound and led away. What became of the disciples? Did they surround Jesus and vow to face whatever He faced?

Sadly not, just as He had predicted all of the disciples scatter at this point. They disappear into the darkness of the mountain and leave the light of the world alone.

The arrest story is concluded with the strange account of a scantily clad observer fleeing the scene. It is, when you think about it a very curious way to end this solemn and serious event. It's almost like a moment of light-hearted comic relief. As I said to you two weeks ago this incident has provoked much discussion. Is this man Mark? That is what many have concluded. They claim that he is including this cryptic reference to tell his readers that he was a witness to these events? So is it Mark? Possibly, but since the bible does not say definitely neither can we.

Today we will pick up the story as Jesus is put through the first of His unfair and unlawful trials. Before we look at this will you join me in prayer.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2 주 전에 살펴본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겔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난 주간 목요일 늦은 저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의 겔세마네(올리브 들이 있는 곳)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시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고통의 잔; 십자가의 짐을 치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영적인 고통에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와 성찰의 시간은 유다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많은 사람들의 도착으로 끝납니다. 유대 지도자들, 성전 경찰,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이 “소규모 군대”는 중무장하고 이 “위험한 혁명가”를 체포하려고 도착합니다. 어두컴컴한 동산에서 유다는 입맞춤으로 주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얹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 말고(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께서 그의 귀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음을 누가복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한 이 불필요한 사건은 주 예수님을 불쾌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밤에 활동하는 테러리스트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개방적이고 투명했습니다. 매일 그분은 성전에서 자유롭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런 식으로 중무장한 채 밤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낮 시간에 올 수도 있었고 그분께서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되어 끌려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분이 직면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그들이 모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채 산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체포 이야기는 별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한 청년의 기이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 엄숙하고 진지한 사건의 이야기를 끝내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코믹하게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마가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가가 자신이 이 사건의 목격자였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포함했을까? 그럼 마크 맞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이 확실히 밝히지 않으니 그 사람이 마가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첫 번째 재판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Introduction – Jesus' unfair trials

One of the marks of a civilised, democratic and fair-minded country is reflected in the way its legal system operates. We regard it as fair that people are allowed to hear the charges against them. It is also right that people are allowed qualified legal counsel so that they can adequately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the law. We also expect, or strongly hope that judges are making decisions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before them. We certainly hope that they are not being controlled or swayed by strong political forces in the background. In a fair and honest legal system we desire that the judiciary not be biased or prejudiced in the rulings they hand down.

Sadly as we shall soon see the Lord Jesus did not receive a fair trial. Those judging Him were not seeking the truth and carefully weighing up the evidence. Instead, they were very strongly biased against Him. In fact, they had predetermined His guilt even before the proceedings began.

We know this to be the reality because they flouted a whole array of their own rule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render their guilty verdict against Jesus. Here are some of their own regulations they blatantly ignored.

서론 – 예수님의 불공정한 재판

문명화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정신을 지닌 국가의 특징 중 하나는 법률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혐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복잡성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옳습니다. 게다가 판사들이 제시된 증거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명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배후에서 강력한 정치세력에 의해 통제되거나 휘둘리지 않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법률 시스템에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때 편향되거나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슬프게도 주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판단하는 자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고 증거를 주의 깊게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에 대해 매우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분의 죄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그들 자신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노골적으로 무시한 자체 규정 중 일부입니다.

1	No decision of guilt or innocence could be made before a trial began.
2	Officials had no authority to make an arrest at night unless someone was caught in the act of a crime.
3	Judges were not to be part of an arrest.
4	Capital trials could not be held at night.
5	A criminal could not be acquitted in one day; a guilty verdict also demanded a night to think about it.
6	The judges were to be defenders as well as accusers.
7	A member of the Sanhedrin was supposed to be assigned to defend the accused.
8	Hearsay evidence was inadmissible under Hebrew law.
9	Circumstantial evidence was discredited; Hebrew law was based upon two or three witnesses.
10	The youngest members of the Sanhedrin were to vote first.
11	The Sanhedrin had no authority to originate charges, only to try them.
12	Court sessions were forbidden on feast days and the eve of the Sabbath.
13	The accused could not testify against himself.
14	A high priest was not to rend his clothes.

1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유·무죄 결정도 내려질 수 없다.
2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한 당국자가 밤에 체포할 권한이 없다.
3	재판관들은 체포에 참여할 수 없다.

4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밤에는 할 수 없다.
5	범죄자는 하루만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고, 유죄 판결도 그것에 대해 재고하기 위해 하룻밤은 시간을 주어야 한다.
6	재판관들은 고발자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기도 하다.
7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산헤드린 구성원 한명을 배정해야 한다.
8	소문에 의한 증거는 히브리 법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없다.
9	정황 증거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히브리 율법은 두세 명의 증인에 기초를 둔다.
10	산헤드린의 가장 어린 구성원이 먼저 투표한다.
11	산헤드린은 고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단지 재판만 할 권한이 있다.
12	절기일과 안식일 전날에는 법정 회의가 금지된다.
13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다.
14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찢어서는 안된다.

What this means in reality was that the Lord Jesus was not permitted to have a fair trial.

Let me say a few brief things on the number of trials Jesus faced.

There were six parts to Jesus' trial. These can be divided as follows, three stages occurred in a Jewish religious court and three stages before a Roman civil court.

In the first part (stages 1-3) Jesus was tried before Annas, the former high priest; Caiaphas, the current high priest; and the Sanhedrin. He was charged in these religious trials with blasphemy, claiming to be the Son of God, the Messiah.

In the second part (stages 4-6) Jesus appeared before the Roman authorities, the civil court. He came first to Pilate. He was then sent to Herod Antipas before returning for a second time to Pilate. The charges here were very different from the charges levelled against Him in His religious trials. Here He was charged with inciting people to riot, forbidding the people to pay their taxes, and claiming to be King.

With that important background information covered let us look at today's account.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주 예수께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수많은 시련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법정에서 3 단계, 로마 민사 법정에서 3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부분(1-3 단계)에서는 예수께서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 현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이 종교 재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4~6 단계)에서는 예수께서 로마 당국인 민사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먼저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런 다음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진 후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

왔습니다. 여기서의 혐의는 종교 재판에서 그분에게 씌워진 혐의와 매우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세금 납부를 금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배경 정보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3 And they led Jesus away to the high priest; and with him were assembled all the chief priests, the elders, and the scribes.

The Lord Jesus is arrested and bound. He is then led down the slopes of the Mount of Olives, across the Kidron valley and back into the city of Jerusalem.

In my introduction I spoke about the three stages that made up the Jewish part of Jesus trial. Mark does not include stage one the hearing before the former high priest Annas (father in law of Caiaphas). John is the only gospel writer to include this significant detail (John 18:12-14).

There has been much debate over the centuries about the role Annas played in Caiaphas' appointment. Was Caiaphas given this very powerful and important position based on merit? It seems highly unlikely, the fact that Annas played a major part in Jesus' trial strongly indicates that he may have advised, or even controlled Caiaphas even after he had been formally stripped of the title.

Mark tells us that Jesus is taken to the house, or residence of the high priest Caiaphas (ruled from 18-36 AD). According to tradition, Caiaphas's house lay a kilometre to the south-west of Gethsemane on the slopes of Mt. Zion. This was of course not the usual place for such proceedings to take place. In fact, it was highly irregular. The official meeting place of the Sanhedrin was the Hall of Hewn Stone which was located within the Temple precincts. Any decisions made by the Sanhedrin were not valid unless they were reached in the official meeting place. This regulation was conveniently waived here.

As I pointed out in my introduction the religious authorities seemed quite happy to break many of their own laws that governed how trials were to be conducted. The great haste with which things took place was necessitated by their need to have Jesus found guilty so that He could be tried by the Roman court at dawn, and then executed before Passover began at dusk. We should also note the great secrecy that surrounded Jesus' trials. Clearly they didn't want news to spread about what was happening. They didn't want a public riot or protest to spoil their plans.

At this gathering were all the chief priests, the elders and the scribes. This means that this was the Sanhedrin who had been called to meet at this unusual time and place. The Sanhedrin consisted of seventy members plus the high priest. As we have seen throughout Mark's gospel they are highly critical and antagonistic towards the Lord Jesus. There was no way this group of men would give Him a fair trial. Let us read on and find out what Peter was doing.

53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였다.

주 예수님은 체포되어 결박당하셨습니다. 그 상태로 그분은 감람산 비탈을 따라 내려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서론에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수님 재판의 세 단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는 전 대제사장 안나스(가야바의 장인) 앞에서의 첫 번째 심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 작가입니다(요한복음 18:12-14).

가야바의 임기 동안 안나스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수세기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의 공덕으로 인해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이 직위를 얻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안나스가 예수의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후에도 가야바에게 조언하거나 그를 통제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주후 18-36 년 통치)의 집으로 끌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가야바의 집은 겐세마네 남서쪽으로 1 킬로미터 떨어진 시온 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은 그러한 일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모임 장소는 성전 경내에 위치한 다듬은 돌의 전당 Hall of Hewn Stone 이었습니다. 공식 회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산헤드린의 결정은 유효하지 않았습니 다. 물론 이 규정이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무시되었습니다.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종교 당국은 재판 진행을 규율하는 자체 법률의 많은 부분을 기꺼이 위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황혼에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처형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의 재판을 둘러싼 엄청난 비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 다. 공개적인 폭동이나 시위로 인해 자신들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 다.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특이한 시간과 장소에 모인 그들이 산헤드린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산헤드린은 70 명의 회원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주 예수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이 무리들이 그분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고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시다.

54 But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in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And he sat with the servants and warmed himself at the fire.

As we saw upon Jesus arrest the disciples fled into the night.

Peter however doesn't go too far before he stops and turn backs. It's evident that the authorities are not really interested in him. It's only Jesus they want.

So Peter follows Jesus at a safe distance perhaps seeking a way or an opportunity to help. When they arrive at the house of the high priest we get seemingly contradictory accounts. Mark and Matthew (Matthew 26:58) say Peter goes into the courtyard, while John says he stays outside, by the gate (John 18:16). Which is correct? I don't think its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Peter probably lingered by the gate for a short time to make sure it was safe before going inside to warm himself by the fire. It must have been a cold night and the warmth from the fire would certainly have been comforting. But think for a moment about what this seemingly minor detail tells us. As this farcical trial is being played out and Jesus is being “fitted up” for a crime He didn't commit what is Peter doing? He's warming himself by the fire. What most concerns Peter? His own comfort and ease. How tragic, and yet how often such criticisms could equally be levelled against us. How often are we more concerned by our own needs, wants and desires rather than the things of God. Let us continue and see how the trial is unfolding.

54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가서 경비병들 틈에 끼어 불을 쬔고 있었다.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어둠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멈춰 돌아섰습니다. 당국이 그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찾기 위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모순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가와 마태(마태복음 26:58)는 베드로가 뜰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요한은 그가 문 옆 바깥에 머물고 있다고 말합니다(요한복음 18:16). 어느 것이 맞나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불 옆에서 몸을 녹이려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지 살피기 위해 잠시 동안 문 밖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추운 밤이었음에 틀림없었고, 불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확실히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터무니없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수께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짜맞춰지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피터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얼마나 비극적인지요, 하지만 그러한 비판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 자신의 필요, 원함, 갈망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계속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5 Now the chief priests and all the council sought testimony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but found none. 56 For many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but their testimonies did not agree. 57 Then some rose up and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saying, 58 “We heard Him say, ‘I will destroy this temple made with hands, and within three days I will build another made without hands.’” 59 But not even then did their testimony agree.

The Sanhedrin are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Even in this sham trial they must have some reason or justification for finding Jesus guilty. If they want Pilate to authorise the death penalty they must present believable grounds for execution. The problem is that they will never find a valid accusation that Jesus broke the Law. This is because He never did. Jesus never sinned (1 Peter 2:22). So they must contrive some “evidence” against Him. This underscores their wickedness. They are not seeking truth, they have already decided Jesus’s guilt and are only looking for something that will be either believable or sufficient for the Roman governor.

Some it seems are willing to come forward and give evidence. That such people were available and ready at night suggests that this had been planned and prepared in advance. In Jewish trials witnesses came and gave their accounts separately. Since they were simply making up their false accounts against Jesus they naturally didn't agree. They contradicted each other. Pentateuchal law required that there be at least two witnesses and that their testimony agree, especially for a capital offence.

At this point some others stood up and showed they had completely misunderstood Jesus claim regarding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They claim that Jesus had threatened to destroy the temple. Jesus' claim is recorded in John 2:19, shortly after He cleanses the temple courtyard of merchants. The Jewish leadership confronts Him, asking for proof that He is authorized to drive out the money-changers and animal tradesmen. Jesus responds;

19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John 2:19)

As weak an argument as this is it is at least something to build a case against Jesus upon. It was a capital offence under Roman law to destroy a place of worship. Again the problem is that the accusation, that Jesus threatened to destroy the temple, is false. Jesus never stated that *He* would

destroy the temple, but *if* someone else destroyed the temple, He would rebuild it.

And, later, among His own disciples, He does prophesy that the temple will be destroyed, but not by His own hand (Mark 13:2).

So what these witnesses are claiming is a bold-faced lie. However even in this they cannot produce a consistent lie. Things are not going well. It is time for Caiaphas, the High Priest to step forward and try to get Jesus to incriminate Himself.

55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다. **57-58**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 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 **59**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산헤드린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짜 재판일지라도 그들은 예수에게 유죄를 선고할 어떤 이유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승인하기를 원한다면 처형을 위한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어겼다는 타당한 혐의를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결코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베드로전서 2:22).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에 대한 어떤 “증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사악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유죄라고 결정하고 로마 총독이 믿기에 충분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꺼이 나서서 증거를 제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늦은 밤에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사전에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유대인 재판에서는 증인들이 각자 따로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오경법 Pentateuchal law에서는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하고 그들의 증언이 일치해야 하며,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몇몇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성전 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주장을 완전히 오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요한복음 2:19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뜰에서 상인들을 몰아내신 직후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께 맞서서 그분이 환전상과 동물 장수들을 쫓아낸 권한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9)

이 주장은 미약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배 장소를 파괴하는 것은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한 적이 결코 없었고, 만약 누군가 성전을 무너뜨린다면 그분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나

그분이 직접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막 13:2).

그러므로 이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관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없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예수님이 죄를 범하도록 유도할 차례입니다.

60 And the high priest stood up in the midst and asked Jesus, saying, “Do You answer nothing? What is i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Up steps the high priest Caiaphas. The court's witnesses have proven useless. It is clear to all that they are lying because their testimony does not agree. So Caiaphas wants to try a different approach. He wants to see what Jesus has to say about all this. In law courts of that day (Greco-Roman and Jewish) a prisoner was required to make a response to the charges and the witnesses presented against them. This seems natural and obvious. The defendant should naturally want to respond to the charges, and refute anything false that has been claimed about them. What does Jesus have to say to the charges brought against Him? Let's find out.

60 이때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섭니다. 법정 증인은 쓸모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증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명합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 당시(그리스-로마와 유대) 법정에서는 죄수는 자신에 대한 혐의와 증인에 대해 답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당연히 혐의에 대응하고 그에 대해 주장된 허위 증언을 반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알아 봅시다.

61 But He kept silent and answered nothing.

Again the high priest asked Him, saying to Him,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62 Jesus said, “I am.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Power, and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What's our natural response when we are accused of something we did not do? We become indignant, often we become angry. We want to robustly challenge the false claims made against us. This is exactly what the Lord Jesus did. He argued vociferously that these witnesses were lying.

No, this is not what our Lord did. Throughout his trials before the Sanhedrin and Pilate, Jesus is portrayed by Mark as maintaining his silence. I suppose we could say that He had no need to respond. No one had managed to find any fault in Him. There was nothing for Him to refute. Also we should remember that any statement He chose to make could be twisted and used against Him. So in some ways His silence shows His absolute disdain for this phoney trial and the fraudulent charges they have brought against Him.

However there is of course much more to it. His silence is dictated by more than strategic interests. Mark highlights Jesus silence because he wants to draw a parallel with the suffering servant portrayed by the prophet Isaiah. Let me read Isaiah 53 verse 7 for you.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He was led as a lamb to the slaughter,
And as a sheep before its shearers is silent,**

So He opened not His mouth.

So Mark is highlighting for us how Jesus fulfilled Old Testament prophecy. At only one point does Jesus break His silence. We might wonder why He chose to do so at this particular moment. Why did He not maintain His silence? The reason the Lord Jesus spoke up at this point is because He was **put under oath**. This detail is not included in Mark but can be found in Matthew. Let me read the pertinent verse for you.

But Jesus kept silent. And the high priest answered and said to Him, “I put You under oath by the living God: Tell us if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Matt 26:63)

Being put under an oath of this nature obliged the defendant to truthfully answer the question put before them. So let us imagine the scene. The high priest rises to his feet no doubt in a great show of pomp and theatricality. He approaches Jesus bound in the middle of the assembly and asks Him a direct question.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Let us consider what the High Priest is asking. **Are you the Christ?** He means here the anointed one of God; the Messiah. Remember that the popular Jewish concept of Messiah was that he would be a human descendant of David. So Caiaphas was not necessarily asking if Jesus claimed to be God, but only a human "Messiah." He then asks Him if He is the Son of the blessed. The use of the expression “blessed” was a common Jewish euphemism for God. Remember they would avoid using God's proper name for fear of offending Him. So the question that Caiaphas is asking is, are you claiming to be God's Son?

How does Jesus answer? You will recall that frequently throughout Mark's gospel Jesus has tried to restrict the true knowledge of who He is from spreading. He has frequently commanded people not to share publicly the miracles they have seen Him do.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He sought to avoid a crisis. But now its late, the time of crisis has arrived. There is no longer any need to keep the truth a secret.

“I am,” He tells them. He is direct and straightforward. You asked me if I am the Christ and I tell you that I AM. He then goes on to testify clearly that he was indeed the Son of God. The title “Son of man” is messianic. The Son of Man was a character in one of Daniel's visions. In the future, the Ancient of Days will give the Son of Man an everlasting kingdom and dominion over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Daniel 7:13–14). Jesus has called Himself the "Son of Man" throughout His ministry (Mark 2:10, 28; 8:31, 38; 9:9). Here it has a special meaning.

The Lord Jesus is reminding His hearers that though at this moment in time they stand in judgment of Him, He will be the ultimate judge. Or to put it another way. From a human perspective it looked as if Jesus was losing. The trial was not going well. But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He had won.

How will the council respond to Jesus words? Let's find out.

61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62**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받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개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를 상대로 제기된 잘못된 주장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산헤드린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침묵을 지키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응답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에게서 어떤 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반박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어떤 진술을 하시더라도 왜곡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그분의 침묵은 이 가짜 재판과 그분에게 씌워진 거짓 혐의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경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물론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전략적 유익 이상의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한 고통받는 종에 비유하고자 예수님의 침묵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53 장 7 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침묵을 깨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 특별한 순간에 그러기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침묵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주 예수께서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맹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63)

이러한 맹세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그들 앞에 놓인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럼 그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대제사장은 틀림없이 장엄하고 극적인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모임 가운데 묶인 예수님께 다가가서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대제사장의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네가 그리스도이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대중적인 개념은 그를 다윗의 인간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가야바는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 "메시아"인 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찬송 받다, 복이 있다 blessed”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완곡어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까 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자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를 피하고자 했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었고, 위기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비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I am”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대답은 직접적이고 솔직합니다. 너는 내가 그리스도이냐고 물었고 내가 그 IAM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인자 Son of man”는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인자는 다니엘의 환상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미래에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영원한 나라와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자에게 주실 것입니다(다니엘 7:13-14). 예수님은 사역 전반에 걸쳐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막 2:10, 28; 8:31, 38; 9:9).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이 그분을 심판하고 있지만 최종 심판자는 예수님임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치 지고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인 것이 하나도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공의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알아 보자.

63 Then the high priest tore his clothes and said, “What further need do we have of witnesses? 64 You have heard the blasphemy! What do you think?”

And they all condemned Him to be deserving of death.

The members of the council knew exactly what Jesus was saying. He was claiming to be God come in human flesh! This claim was blasphemy to the Jews. Let me read to you from the book of Leviticus.

15 “Then you shall speak to the children of Israel, saying: ‘Whoever curses his God shall bear his sin. 16 And whoever blasphemes the name of the LORD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All the congregation shall certainly stone him, the stranger as well as him who is born in the land. When he blasphemes the name of the LORD, he shall be put to death. (Lev. 24:15–16)

The Jews regarded blasphemy as any serious affront to God. This naturally included speech that insulted God, but also embraced any claim one made for oneself about having a unique or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So to claim that you had the right or privilege to sit at God's right was an act of blasphemy.

The High Priest is deeply offended. He tears his clothes in a visible sign of shock, indignation, grief or mourning. Of course, we do not know whether Caiaphas was truly outraged at Jesus' statements, or if he's trying to emotionally manipulate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The position of High Priest was a religious one, but over time it had become increasingly political. The High Priest instead of being solely focused on guiding people towards God spent most of his time trying to gain advantages from or appease the Romans. So this may have been just an act designed to sway the rest of the council in his favour.

As an aside it was actually against God's law for him to tear his priestly garments (Lev. 21:10). But as we have seen these wicked men do not seem averse to breaking God's laws when it suits them.

The High Priest asks the other council members how they judge Jesus. Mark tells us that all of them found Him guilty and **deserving of death**. The Torah demanded the death penalty for blasphemy, and Jesus by His own admission was, in their eyes guilty. This is exactly what Jesus had predicted would happen. In the third passion prediction (Mark 10:33) Jesus prophesied that he would be “condemned to death,” and that has now been fulfilled. Let us discover how this whole sorry incident concludes.

63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64**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공의회 의원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15 “그런 다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당할 것이다. **16**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온 회중은 나그네나 본토에서 난 자나 다 반드시 그를 돌로 칠찌니라 여호와 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리라 (레위기 24:15~16)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독특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권리나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 행위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충격, 분노, 슬픔 또는 애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시로 옷을 찢습니다. 물론, 가야바가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분노했는지, 아니면 그가 산헤드린 의원들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지위는 종교적인 지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정치적인 지위로 변모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로마인들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그들을 달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머지 의회를 그에게 유리하게 흔들기 위해 고안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레 21:10).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악한 사람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공의회 의원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습니다. 마가는 그들 모두가 그분이 유죄이며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토라는 신성모독에 대해 사형을 명령했고, 예수 자신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눈에는 유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고난 예언(마가복음 10:33)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정죄를 받으리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5 Then some began to spit on Him, and to blindfold Him, and to beat Him, and to say to Him, “Prophecy!” And the officers struck Him with the palms of their hands.

Has anyone ever spat in your face? I hope not. I remember at middle school someone I had never interacted with and did not know coming up to me and spitting in my face. I never did find out why he did it. It was a horrible moment in my school life.

Spitting is universally decried as a terrible insult. There is no nation on this planet that finds it acceptable to spit in other people's faces. We'd only ever spit on someone we absolutely despised or had great contempt for. But this was exactly how these supposedly wise and educated leaders of Israel reacted to the Lord Jesus. It's hard for us to imagine members of parliament or elected

government officials acting in this way. But this was how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the leaders of the nation of Israel responded.

They seemed unable to show any self restraint or decorum. Our innocent Lord and saviour was physically abused. Some men spat in His face. Others blindfolded Him before hitting him. What exactly was going on here. Well this practice was linked with the idea held at that time that the messiah would not need to see but would be able to judge by smell. So whilst He was blindfolded members of the Sanhedrin and officers from the temple police struck Him and asked Him to identify who it was. They of course didn't believe Him to be the messiah they were simply mocking Him. It was shocking and shameful behaviour.

Once again the Old Testament had predicted this type of abuse for the Messiah (Isa. 50:6)

**I gave My back to those who struck Me,
And My cheeks to those who plucked out the beard;
I did not hide My face from shame and spitting.
(Isaiah 50:6)**

But what is interesting is Jesus response. It was grossly unfair and Jesus had every right to object or protest. Even someone who is guilty deserves to be treated humanely. Jesus was innocent of all the charges levelled against Him, so He had every reason to protest. But this was not what He did. Through all this suffering, Jesus did not protest or retaliate. This is what Peter writes,

21 For to this you were called, because Christ also suffered for us, leaving us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His steps: 22 “Who committed no sin, Nor was deceit found in His mouth”; 23 who, when He was reviled, did not revile in return; when He suffered, He did not threaten, but committed *Himself* to Him who judges righteously; (1 Peter 2:21-23)

What a wonderful example He left us. I shall speak more about this in a moment.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Peter's denial.

65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마구 치며 “예언자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고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넘겨 받더니 뺨을 쳤다.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나요? 없길 바랍니다. 중학교 때 한 번도 교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랬는지 결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침을 뱉는 것은 보편적으로 끔찍한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경멸하는 사람에게만 침을 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소위 현명하고 교육받았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주 예수께 한 행동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의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제력이나 예의를 전혀 갖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죄없으신 주님이자 구원자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때리기 전에 그분의 눈을 가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관행은 메시아는 눈으로 볼 필요 없이 냄새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당시의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분의 눈을 가린 채 산헤드린 의원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그분을 때리고 그가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분을 조롱했을 뿐입니다.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성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학대를 예언했습니다(사 50:6).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0:6)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었고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반대하거나 항의할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비난에 대해 무죄하셨기 때문에 항의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의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은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21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기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23**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21-23)

그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드로의 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Our proper place is by Christ's side

Let's consider Peter. In some ways we could say he showed some courage. The rest of the disciples disappeared into the night. Only peter stayed. So let us commend him at least for this act of bravery. But when we examine in detail the rest of Peter's conduct we see that there is little else to commend. The first thing to note is that he followed Jesus at a distance.

He hung back in the shadows. He wanted to follow, but in a cautious, reserved way. He didn't want to be associated with Jesus. The next thing to note is his behaviour at the high priests house. I suppose we could argue about what he could have done. He could hardly have stormed the house and tried to rescue Jesus. This would have been a suicide mission and more importantly wasn't God's plan. But what he chose to do seems even worse. He made his way to the fire and made himself comfortable. Whilst Jesus was being falsely tried, beaten and humiliated Peter was nice and cosy by the fire.

I wonder how many of us are in many ways just like Peter. How many of us are following Jesus from a "safe distance." How many of us are more concerned about our own comfort than in being faithful to our Lord and saviour.

I have spoken to you before about reading the obituary of a close friend's father and being shocked and surprised that he was apparently a "committed Christian." In all the years I had known the man he had never once spoken of his faith, or given any indication that he followed Christ. Just like

Peter he followed Christ at a safe distance.

So what about you? How many of your family members and work colleagues know that you are a Christian? If your answer is just a few then you are following Christ at a distance. How many of your family members or friends can see in your words and actions that you are shaped by, and trying to live up to God's standards. Again if the answer is just a few then you are following Christ at a distance.

Perhaps following from a distance seems easy or comfortable. Maybe being half-hearted and focusing more on what's good for you is more satisfying. But think about it this way. When you were a child and were walking into some dark or scary place where did you want to be? Thirty meters behind your father or next to him holding his hand. You might have made a pretence of being brave but really you wanted your little hand inside his. You wanted the comfort and assurance of being next to him.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our Christian life. When things get difficult, when the storms of life buffet and toss us where do you want to be? Trailing far behind our saviour or standing by His side? The answer should be obvious.

피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 그는 어느 정도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피터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를 칭찬합시다. 그러나 베드로의 나머지 행동을 살펴보면 그 외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몸을 사렸습니다. 그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조심스럽고 소심한 방식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엮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대제사장 집에서의 그의 행동입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집에 들이닥쳐 예수님을 구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였을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일은 훨씬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그는 불 옆에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불 옆에서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피터와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구원자에게 충실하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가까운 친구의 아버지의 사망 기사를 읽고 그가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놀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지냈던 수 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어떤 암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는 안전한 거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가족과 직장 동료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몇 명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형성되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대답이 단지 몇 명 뿐이라면 당신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멀리서 따라가는 것이 쉽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절반의 마음만 헌신하고 나머지는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렸을 때 어둡거나 무서운 곳을 걸어갈 때 당신은 어디에 있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뒤에서 30 미터 정도 떨어져 걷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일까요? 당신은 용감한척할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작은 손을 아버지의 손 안에 넣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 옆에 있다는 위로와 확신을 원할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당신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우리 구세주보다 훨씬 뒤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곁에 서 있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2 Following Jesus example

No one like injustice. None of us should be content to see people treated unfairly. Today the media is full of people screaming for social justice. Often these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genuine social justice, but only in the justice of those on their side or who meet their criteria. For example the feminist movement is vociferous about women's rights to kill their unborn babies. It is, so they claim a fundamental right for women to be able to choose to murder their unborn babies. But they're not quite so vocal about the rights of the unborn children, including baby girls. In fact when it comes to these victims there is a deafening silence.

The Lord Jesus had every right to protest and argue about the abuses He faced. An unfair and unlawful trial followed by physical abuse and torment. And yet He did not fight back or even call down curses on His abusers. He bravely bore all that was thrown upon Him.

We too are called upon to follow our Lord's example. What we have to face is paltry by comparison. We may be called upon to take some ridicule or mocking. We may receive some ribbing for believing in "pie in the sky" or a "fairy-tale." We may in some circumstances have to endure verbal or even physical abuse. In some places Christians are called upon to be tortured and killed.

If, or when such circumstances arise how are we to respond? We are of course as always left with our Lord's example. He endured His torment in silence. He didn't argue or fight back. He quietly allowed these things to take place knowing that through them God would receive the glory. The same holds true for us. When we respond as Christ did God is pleased, and He receives the glory. We can in the moment of discomfort look ahead to the rewards He has for His good and faithful children. Let us all in our own small way joyfully follow Christ's example.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언론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회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의 편에 있거나 자신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의 정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운동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열성적으로 주장합니다. 즉 그들은 여성이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살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 아기를 포함하여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희생자들에 관해서는 귀가 먹도록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직면한 학대에 대해 항의하고 논쟁할 모든 권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재판에 이어 신체적 학대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반격하거나 저주를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것을 용감하게 견디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모범을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일은 그에 비하면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야유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떡'이나 '동화'를 믿는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언어적, 심지어 신체적 학대를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렇듯 주님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분은 침묵 가운데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논쟁하거나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묵묵히 용납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대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불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고 신실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보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방법으로나마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쁘게 따르도록 합시다.

